

설교 | “다시 춤추게 하십니다.” (시 30:4-12)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기쁜 일도 축하받지 못하고, 슬픈 일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낯선 일상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말하며 풍성한 열매를 기뻐하던 이번 명절은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모이지도 못하고, 반가워야 할 만남도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은 찬송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4). 그는 인생에서 형통한 순간도 있었고(6) 근심하는 날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7). 그의 삶처럼 우리도 형통함과 근심 사이를 오가는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근심에 더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새웠던 수많은 광야의 밤을 생각해봅시다. 그는 모함 받고, 쫓기며, 은둔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형통한 순간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탄식하는 밤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아침이 오면 밀려나는 잠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5).

다윗은 근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10).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물질, 권력, 사람, 배경 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의지하였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찬송도, 어떠한 감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슬퍼하고, 오늘은 베통을 입었을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십니다(11).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법궤를 보고 힘껏 춤을 추었듯이, 맛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고, 우리로 다시 힘껏 춤추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 9. 21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온영광교회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22 (호성동1가)
(063)241-1392

[추석 가정예배 순서]

인도 : 가족 대표 한 분

신앙고백 다 같이

찬 송 588장 다 같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시편 30:4-12 인 도 자

4.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역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 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설 교 “다시 춤추게 하십니다” 말 은 이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12장 다 같이

주 기 도 다 같이

■ 찬송가 588장 _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1 공중나는 새를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것이 없어도 세상주관 하는주님 새를먹여 주시니 너희먹을 것을위해 근심할것 무어나
- 2 들의백합 화를보라 길쌈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웃도 이꽃만못 하였네 아궁속에 던질풀도 귀히입히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먹고 마시며 무슨옷을 입고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하는 아버지는 너희쓸것 아신다
- 4 너는먼저 주의나라 그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일을 위하여서 아무염려 말지니 내일염려 하지말라 오늘고생 족하다

■ 찬송가 412장 _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1 내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조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영혼을 고이싸네
 - 2 내맘속에 솟아난 이평화는 깊이묻히인 보배로다 나의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아무도 없으리라
 - 3 내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큰복을 받음이라 내가주야로 주님과 함께있어 내영혼이 편히쉬네
 - 4 이땅위의 험한길 가는동안 참된평화가 어디있나 우리모두다 예수를 찬구삼아 참평화를 누리겠네
-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위에서 내려오네
그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영혼을 덮으소서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